

# “자녀와 함께하는 나눔,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



퇴직후 봉사의 삶...아린이재단 기부 전도왕 순천 이전선 씨

2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이가 한 순간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딸과 두 어머니, 부인까지 6명이 함께 살아가는 집안의 가장이라면 더욱 그렇 것이다. 그 힘에도 직장을 포기하고 봉사의 삶을 사는가 있다. 그 주인공은 순천에 살고 있는 이전선(48) 씨. 그가 회사를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어려운 이웃을 돋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이전선 씨는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선정한 '기부 전도왕' 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그는 2009년 초록우산을 알리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2080명과 후원 약정을 맺어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도록 만들었다. 가장자이 평범한 회사원이 기부 전도사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기부한 금액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부전도사로 나서게 됐어요. 높은 연봉보다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회사를 그만두기 전부터 소액기부를 하며

동료에게 기부문화를 전파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알렸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2009년 회사를 나와 본격적으로 흥보에 나서게 됐어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라남도 후원회 부회장은 맡고 있는 그의 일상은 보험설계사와 비슷하다. 계모임이나 공공서, 등산모임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재단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알린다. 회사에서 인사담당자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사람 만나는 것은 자신 있지만 가끔 자신을 영업사원으로 보는 눈초리는 씁쓸하다. 특히 기부금 자동이체를 위해 개인정보를 물어볼 때면 사람들의 거부감은 커진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삼고소리'다. 한 번에 기부 약정을 맺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3~4번 찾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기부약정을 받는다. 이렇게 밭로 뛰어 2000여 명과 소중한 약정과 인연을 쌓았다.

이전선 부회장은 '은 가족 기부'를 강조한다. 가

족 구성원 한 명만 대표로 후원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씩 기부하는 것이다. 실제 그의 가족 6명도 각각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자녀에게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가정 교육은 없다고 역설한다. 또한 늘어나는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도 기부를 통해 치유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자녀와 한자리에 앉아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야기하며 돈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기부를 통해 기회를 준다면 모두가 원-원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부 전도왕'의 다음 목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를 알리는 것이다. 순천강 남여자고등학교 학생 22명과 학생 봉사단을 만들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기부를 알리고 있는 그는 좀 더 많은 학생과 만나 '기부 꿈나무'를 키워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풍향주민센터, '임을 위한 행진곡' 서명운동



광주시 북구 풍향동(동장 김진영)은 최근 민원실과 광주교육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주민·학생을 대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의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정원박람회 전국 남·여 축구대회 성료



제1회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축구대회가 지난 2일 순천팔마주경기장 외 4곳에서 막을 내린 가운데 남자부는 광주 희목팀과 여자부는 서울 양천구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동부축제본부=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옥과농협, 농가 7곳 일손돕기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지부장 문영홍)와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최근 직원은 물론 여성조직주부대학, 부녀회 등과 함께 옥과면 소통리 김선엽씨 농가 등 7곳의 농가에서 사과 직과작업을 실시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나주 명동안경, 저소득층 학생에 무료안경



나주 명동안경(대표 최종덕)은 최근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기평)과 관내 열세한 가정의 학생 및 선·후생 학생 100명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안경을 무료로 지원해주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kwangju.co.kr

인사

◆광주 광산구

◇열린민원실장 최치현

주철현 전 검사장 여수서 법률 서비스  
학동에 변호사 사무실 '더 원' 개소



최근 겹침을 떠난 여수 출신 주철현(54·사법연수원 15기) 전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이 지난 31일 여수 학동에 변호사 사무실(법무법인 더원)을 개소했다.

여수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온 주 변호사는 1983년 공직에 입문(사법시험 25회)한 뒤 대검 공안2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부장, 법무부 감찰기획관,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주 변호사는 사무실을 고향에 낸 이유에 대해 "30여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는 지역에서 여수시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태풍 피해 현장 복구 공로 '대통령상'

### 김행운 농어촌공 전남본부장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큰 상을 수상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난해 104년 만의 기쁨과 불리반을 시작으로 찾아온 세 번의 연예은 태풍을 겪으면서 최일선에 서서 신속한 재해 극복능력을 보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15호 태풍 불리반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완도제방이 유실된 채로 겹태풍을 맞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전수받았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11년 전남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난해 104년 만의 기쁨과 불리반을 시작으로 찾아온 세 번의 연예은 태풍을 겪으면서 최일선에 서서 신속한 재해 극복능력을 보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15호 태풍 불리반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완도제방이 유실된 채로 겹태풍을 맞



아 큰 재산피해가 우려됐으나 현장에서 직접 응급복구를 지휘해 피해를 줄여 농업인들로부터 진정한 공직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작년에 함께 고생했던 본부 직원 모두에게 주는 삶이라 생각한다"며 "이상기후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부 직원들과 합심해 재해피해 없는 농어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88세 백인술 6·25유공자회 사무국장

88세의 고령에도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해 헌신하는 백인술 사무국장. 그는 6·25전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상사를 냈던 백마전투 참전 용사로 죽음의 문턱도 여러 번 넘었다. 그래서인지 10년 째

신안군 6·25참전유공자회 400여명을 이끌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백 사무국장은 최근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신안군에 건의해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태풍으로 파손된 6·25참전유공자 사무실 보수비용 2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타월한 성과를 이뤘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흔을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회원들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백 사무국장이 이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며 "어려운 형편 때문에 틀니도 없이 생활하는 그를 위해 도움이 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오는 7월1일부터 6·25 참전용사들이 관내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깨달음을 익히면 운명이 바뀐다"

### 박승주 광발연구원장 책 발간

박승주(61) 광주발전연구원장이 공직에 있으면서 지방자치와 정부혁신,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을 진행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은 위함이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박승주 원장은 명상공부를 하며 깨달은 것과 임상체험한 내용을 정리해서 수록했다.

책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이고,

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 원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인은 존

중 받고 위로 받기를 원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그동안의 공직 경험으로 마음 속 화를 억제하고 타인을 위로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었다"고 출판 동기를 밝혔다.

박승주 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

에서 차관,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국가발전 정책개발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익히면 스스로의 운명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박승주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은 존